

벽안의 여성법사, 청소년 자비심 교육에 '앞장'

덱 바흐만 법사 '부처님학교'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서 화제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20년째 불교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벽안의 여성 법사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화제다.

'Wisconsin State Journal'은 "1996년 매디슨 윌러드(Willard) 거리에 상가 힐링 센터(Sangha Healing Center)를 개원한 덱 바흐만(Deb Bachmann·57) 법사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며 "지난해 개설된 '부처님 학교(Buddha School)'가 자녀를 둔 주민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처님학교는 '상가 힐링 센터'에서 지난해 2월 처음 선보이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현재 2기 교육생 10명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오전마다 모여 2시간 30분 동안 강연을 들은 후 토론 및 봉사활동 등 과정을 밟고 있다.

부처님 학교에 대해 "청소년의 자비심을 키우자"라는 모토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바흐만 법사는 "지난해 1기 교육생이 4명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그 4명이라도 모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길 바랐는데 올해 2기 교육생이 10명이라는 게 꿈만 같다"고 말했다.

바흐만 법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음에 자비심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과 실천'이다. 이를 위해 바흐만 법사는 매 수업마다 듣는 강연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서 학생들은 서로 조언하며 고민하는 한편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하

는 것 자체"라고 얘기한 바흐만 법사는 "교육생들은 매 시간 서로가 선택한 친구와 함께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님 학교의 수강생 수가 짝수로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 학교 수강생 사마라 더비(Samara Derby·14)는 "종교,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듣고 이를 동급생들과 함께 토론 주제로 삼을 수 있어 느끼고 배우는 게 많다"며 "특히 개인적이고 고민거리라도 동급생들과 함께하면 위로도 받고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 학교 학부모 케빈 브레렌스틴(Kevin Brellenthin·43) 씨는 "기독교도로서 상가 힐링 센터의 부처님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제 절반의 교육을 마쳤는데, 자녀의 생각과 행동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Wisconsin State Journal'에 따르면 위스콘신매디슨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을 졸업한 바흐만 법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에 머물며 사원行者로서 수행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상가 힐링 센터를 개원했다.

"어렸을 때 파리를 때려잡는 형제들과 다른 적이 많다"는 바흐만 법사는 "파리를 잡기 보다는 집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다는 이견 때문이었다. 나는 항상 내 방 창문만이라도 열어 놓으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불교를 공부하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또한 "자비심은 현대 사회가 공존할 수



덱 바흐만(Deb Bachmann·57) 법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매디슨 부처님 학교(Madison's Buddha School)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자비심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소통·실천으로 자비심 키워

토론과 봉사활동 병행

지역 주민에게 큰 인기

기독교 자녀도 수강할 정도

있는 상생의 길"이라며 "부처님 학교의 강의실은 최대 18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 이수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Wisconsin State Journal'은 "여러 마음의 여성 법사의 한 걸음이 지역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며 "자녀가 마음

이 해맑고 생각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종교를 떠나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바흐만 법사가 내년에 선보일 부처님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가 힐링 센터는 '부처님 학교' 외에도 '시아추(Shiatsu) 마사지'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이 마사지는 일본 사원을 중심으로 그 전통이 전해지고 있는데 시아추는 '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으로 일본 전통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설명한 바흐만 법사는 "고통은 서로의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상가 힐링 센터'의 시아추 마사지는 영적인 배움을 토대로 동적인 치료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유적 '관심 속에 보존'

인도 콘다네·파키스탄 스칼두 존폐 극명히 갈려

불교는 유구한 역사만큼 유적 또한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문화적 여건에 따라 보존되기도 하고 때론 사라지기도 한다. 인도 뭍바이의 불교 유적은 보존되는 반면 파키스탄 스칼두의 불교 유적은 사라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Hindustan Times'는 "뭍바이 지방 정부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석굴사원에 대한 보존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들 석굴사원은 BC 2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조성된 콘다네(Kondane) 지역의 14개 석굴사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뭍바이 지방 정부는 뭍바이대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을 꾸리고 올 연말까지 14개 석굴사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 자원 개발 가능성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단의 요자나 바갓(Yojana Bhagat)뭍바이대 교수는 "콘다네 지역의 석굴사원은 소형 스투파를 중심으로 사원의 구조를 갖추었던 초기 불교의 석굴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번 조사는 콘다네 석굴사원의 보존

을 위해 반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중요성을 널리 알려 대중적 관심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뭍바이의 불교 유적과는 달리 대중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사라져가는 불교 유적도 있다. 바로 '부처 바위'로 널리 알려진 파키스탄 만살(Manthal) 지역 에 스칼두(Skardu)의 불교 유적이다.

'Tribune'는 "1900년대 초반 영국인 여행자 제인 던컨(Jane E. Dauncan)에 의해 '작은 티벳'으로 알려진 스칼두 지역의 불교 유적이 시적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칼두 지역 주민의 종교관이 바뀌면서 불교 유적에 대한 관심 또한 시들해지고 암묵적인 훼손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Tribune'는 발티스탄문화재단(Baltistan Culture Foundation)의 루츠자니츠(Luczanits) 박사의 말을 인용, "스칼두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보존 정책 실패와 지역의 무관심이 더해져 사라지고 있다"며 관심을 환기시켰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유적은 대중과 소통할 때 보존된다. 인도 콘다네 지역의 석굴사원(사진 왼쪽)이 뭍바이 지방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보존의 길이 열렸다. 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칼두(사진 오른쪽) 불교 유적은 파키스탄 정부의 보존 정책 실패와 지역 주민의 무관심으로 사라지고 있다.



태국불교 폭탄테러 위협에 '근심'



지난 7월 13일에 이어 또다시 태국 남부에서 불교도 공격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사진은 13일 발생한 테러 장소서 수사 중인 경찰과 과학수사단 모습.

이슬람 폭탄테러로 승려 1명 사망

군인 2명, 승려 1명 부상 등

7월 13일 발생한 사건 이어 2번째

지난 7월 13일에 이어 또다시 태국 남부에서 폭탄 테러에 의해 승려 1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슬람 세력의 독립을 원하는 자들의 소행으로 짐작되고 있다.

'Lion's Roar'은 7월 27일 "7월 25일 태국 빠따니 지역서 스님이 불교의식 중 하나로 보시를 받는 동안 쓰레기통에 감춰져 있던 원격제어폭탄이 터졌다. 이에 스님과 스님을 보호하던 경찰이 모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군인 2명과 스님 1명, 기부에 동참하던 마을 주민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따니(Pattani) 지역 사이부리(Saiburi) 경찰서장 파냐 카라난(Panya Karanan)은 "말레이시아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의 폭탄테러와 범행 방법이 유사하다"며 "중고 극단주의에서 비롯된 테러 행위"라고 추측했다.

빠따니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3개 도시 중 하나다. 2004년 파타니서 이슬람 세력의 저항이 시작된 후 5천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 당국은 이 중 현재까지 승려 19명은 사망했고, 25명은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소림사 방장 스승신 '성 추문' 의혹

자칭 소림사 신도 스정어씨 주장... 소림사 측 '법적 대응할 것'

중국 소림사 스승신(釋永信)이 잇단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 추문 의혹에 이어 '정부(情婦) 뿐 아니라 수 명의 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중국 북경 신문 '신경보(新京報)'는 7월 28일 자신을 소림사 신도라 밝힌 스정어(釋正義)씨가 인터넷에 올린 '소림사 방장 스승신이라는 부패 호랑이는 누가 감동하냐'라는 제목의 글을 토대로 "스승신 방장이 소림사 계율을 어기고 여자를 희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에서 스승신 방장과 원한 관계는 없다고 밝힌 스정어씨는 "방장은 소림사를 개인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2개의 신분증을 갖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해 애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림사와 스승신 방장은 "소림사 내부 승적 조사 결과 스정어라는 인물은 없었다. 스정어가 주장한 스승신 방장의 여자라는 사람은 집안일은 법사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스승신 방장은 2011년에도 매춘 및 베이징 여대생과 동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미국 MBA 경영학 석사 출신 스승신 방장은 1999년 소림사를 맡은 후 공표 수 영화 촬영, 소림사 라이선스 계약 등 수익사업을 벌여 불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아름 기자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ban

나만의 힐링세계 기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ban

상용할때까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기ban

힐링 신장과 명상, 건강한 내외의 만남입니다 기ban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수지처리 ▶ C비취: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격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